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3월 18일(금)
...(음력 2월 16일)...
Пятница
18 марта 2022г.
№ 10 (1197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의 3번째 일요일에는 러시아 서비스 분야 및 주택공공경리 근로자들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 이 직업 명절은 3월 20일이다.

이경자 씨는 신발 및 가방 수선 마스터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돔 비타'에 있는 수선실에서 이미 20년 이상 일하고 있다. 현재 그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경자 장인은 상업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남편과 함께 신발수리 개업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주문을 받고 있다: 구두 세탁부터, 뒤축 등 여러 수선을 비롯해 가죽제품 수리까지 한다. 고객들은 부부가 주문을 받아 빠르고 꼼꼼하게 수선해 주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예식 기자 촬영)

러시아 연방 정부, 극동지역 지원책 검토

러시아 연방 부총리이자, 극동 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가 극동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에 따른 문제로 극동 지역들의 지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매일 정기적으로 시장 안정과 국내 사업 지원의 현 상황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극동지역의 경제를 유지하고, 투자자들에게 협력을 제공하고, 시장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하고,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 생필품 확보 및 자재 지원 공급으로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새로운 생산성 구축, 새로운 경제적 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해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극동지역과 함께 실시간 극동의 소비시장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 극동관구 각 지역에서는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대책본부가 구성되었다. 논란이 된 점은 일련의 물품들의 가격 상승과 가격 형성의 체계가 문제로 떠

올랐다. 여러 지역에서 화물 운송 가격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러시아 교통부,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화물운송 가격의 상승과 가격 형성 메커니즘의 근거를 분석하도록 지시하고 러시아 검찰 부총장인 드미트리 데메신에게 화물 운송에 대한 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북부 항로를 이용한 화물 운송 문제도 논의한 가운데 주지사들은 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요 물품 공급에 따른 계획과 통제의 문제를 제기하여 부총리는 <북부 수송>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의 이자를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농업업 지원에 대해서는 농업부와 극동개발부가 지역 정부의 실무기관과 공동으로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식품 및 수산물, 곡물 공급을 위한 국가적 공급 확대에 따른 제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전에 대출 계약 체결에 따른 금리를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했다.

향후 2년 내에 사할린주에 4개의 가스 난방시설 가동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의 석탄과 중유 난방 시스템을 가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규정했다. 이로써 주택 공공사업 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사할린의 생태 환경도 호전되어 주민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주지사는 가스 설비 구축으로 연방 자금을 타냈다. 주택 공공사업 개혁에 협력 기금의 지원으로 티몹스코예 마을에 3개 가스 난방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친환경 연료로 가동되는 보일러의 총 전력 범위는 12MW로 조날노예, 키롭스코예, 야스노예 마을에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시설의 50%-60% 이상이 준비가 되었고, 키롭스코예 마을에서는 블록 모듈식 보일러가 공급되어 배관 설비, 전선 및 배수망이 설치됐고, 지하로 소방시설을 구축했다.

조날노예 마을에는 난방시설과 배관 설치가 이뤄졌고, 블록 모듈식 보일러 설치와 엔진 설비를 하는 중이다. 야스노예 마을에는 가스 설비 공사 지대가 준비되어 기초가 건설되었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구역에도 가스 중앙 난방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이전에 설비 회사가 계약을 수행하지 못해 신속하게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일러 기초공사가 완성되었고, 건물의 철물 골조를 설치하는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코르사코브에는 가스 난방시설이 완료된 가운데 기술적 공사율은 99%다.

코르사코브의 가스 공급처 가동 후 여름에 시험 가동이 시작된다.

(3면에 계속)

단신

러시아 정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피란민 1,305명 사할린에 수용

3월 12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피란민 95,909명을 러시아 전역에 분산 거주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보로네즈주는 난민 7천 명을 수용해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 들였고, 다음으로 크라스노다르 변경은 5천330명, 크림 공화국이 4천788명을 수용하여 거주민의 수가 증가된다. 난민은 러시아 85개 행정자치지역으로 분산시켜 거주하게 되는데 사할린주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자신의 집을 두고 떠난 주민 1천305명을 수용하게 된다.

극동지역에서 사할린주는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3개 지역 안에 들었다. 연해주(1,350명), 부랴치야 공화국(1,402명), 하바롭스크 변경은 740명 만 수용했다.

지난 8년간 사할린으로 돈바스의 난민 1,197명이 이주했고, 이후로 난민은 2배가 될 전망이다.

사할린, 돈바스 주민들에게 2차 지원을 보내

사할린주가 2차로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의 피란민들에게 보낼 물품 17톤을 모았다고 사할린주 사회보호부 타치야나 로마네츠가 말했다.

"우리 사할린주는 돈바스의 피란민에게 생필품 16.5톤을 보냈다. 2차로 3월 14일 17톤 이상의 물품이 공항에 도달해 목적지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할린 주민들은 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품들, 침구류, 남녀 의류를 수집했고, 그중에는 아동을 위한 의류 및 학교 용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2월 27일부터 인도적 지원 구호물품 접수처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 계속될 것이고, 이곳에서 수집된 물품들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타치야나 로마네츠가 말했다.

알렉세이 림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보궐선거에서 승리

14호 단일선거구에서 6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의 의원 보궐선거로 알렉세이 림샤가 승리했다. 유권자 5천892명 중 438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알렉세이 림샤가 343표를 얻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보궐선거의 참가율은 7.7%였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처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무대에서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서 마리나. 그녀가 주 한인협회가 하는 한 행사에서 영어 노래를 불렀을 때 '보지 못한 얼굴이네.'라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는 러시아어로 노래를 부르고, 최근에는 한국 노래도 부르고 있다. 여성의 날 행사에서 마리나의 공연을 보니 노래 실력이 괜찮고 한국어 발음도 좋았고, 자연스러운 무대도 마음에 들어 서 마리나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다.

1984년생인 마리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이다.

마리나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유아 때 일입니다. 며칠 동안 열이 크게 올라 잠도 자지 않았어요.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다.'고 엄마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3살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마리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 15호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학교 소속으로 음악 스튜디오-학교가 있었다. 보충교육기관으로서 재능 학생들을 선정해 무료로 공부하도록 했다. 마리에게 음악 실력이 있다 해서 이 과외로 음악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는 집에 와서 "내가 학교-스튜디오에 합격했으니 25 루블리 내주세요. 바이올린을 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수업료를 주었다. 그 당시 마리나의 가족은 대가족으로 살았다. 블라디미르카 동네는 그때 동포

동포가수 서 마리나: 유아 때부터 노래를 즐겨



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고 개인집(주로 나무집)들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리나의 식구는 조부모 외에도 고모, 삼촌 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매일 바이올린을 처음 켜며 연습하는 마리나를 참아주어야 했다는 것이다. 마리나는 그때를 생각하며 그 큰 식구가 이걸 거의 매일 견디어 주었다는 데에 대해 지금도 놀라워 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나중에는 그는 유청소년 창작회관에서 음악반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배웠다. 그리고 노래 활동도 꽤 많이 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합창단, 학교 합창단, 노래 앙상블, 심지어 14살에 교회합창단 단장으로까지 활동했다.

마리나는 창작 능력이 뛰어나 미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미술학교에도 입학했다. 그러나 시력이 조금씩 떨어져 미술은 1년만 하다가 포기했다고 한다.

심리학을 전공한 어머니는 상담교사로서 딸의 창작적인 면을 항상 응원하면서 딸

이 앞으로 사할린국립대 연극 전문학교에 입학하길 바랐다. 그러나 카라테 사범인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딸이 연기보다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경제학 관련 직업을 추천했다. 마리나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태평양국립경제대학 사할린 지부에 입학하여 '경제, 회계 및 감사'를 전공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 저에겐 학교 점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나쁜 점수를 받아도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어 학교를 바꾸었습니다. 기술 리체이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는 시험을 치르고 경쟁에 민감한 학생들이 들어왔고, 자기들의 미래와 꿈을 분명히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열정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틀을 벗어나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되고자 노력해 5점이 더 많은 우등생으로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라고 마리가 말하였다.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보다 다른 활동에 빠졌다고 한다. 바로 개그 동아리(KBH-케웨엔)였다. 대학팀에도 참가하고 우수 팀원으로 인정되어 사할린 지역의 <오스트로와(섬들) 대표팀의 일원이 되었다.

KBH는 직번역으로 재미있고 수완이 빠른 자들의 클

럽이다. 참가자들은 유머감각이 대단해야 하고 농담과 익살을 하여 쇼하는 아마추어 개그로 볼 수 있다. 경쟁을 통해 전국 프리미어-리그에 들어가는 팀은 사할린 KBH역사에서는 바로 마리가 활동하는 팀이었다.

"사실 그땐 가수로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국 티비방송 프로에 한번 노래하고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꿈은 바로 개그 동아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프리미어 리그 팀들은 러시아 1채널 쇼에 출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연기와 농담, 개그 등이 방송에 나갔죠. 제가 노래도 했었습니다."라며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러시아의 대기업 통신사MTC에서 일했는데 일도 재미있었고 회사가 내외로 개최하는 행사도 많았다고 한다. 회사 내에서 노래자랑을 했는데 1등의 부상으로는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것이었다. 마리가 1등을 거머쥐었다.

그 이후 시집을 간 마리는 두 아들(2015년생, 2017년생)을 낳아 거의 3년 반 육아에 몰두했다. 물론 젊은 엄마로서 할 일이 많았다. 가족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기반이자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리나에게는 이 시간도 성장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2019년에 다시 MTC로 돌아온 마리나는 1년 후에 <로스텔레콤>통신사 사할린 지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회사 근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자신의 성장, 창작실력을 살리기 위해 고민한 끝에 그는 보컬교사, 보컬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내기로 했다. 연수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고 국제 보컬교육자연합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연수 과정을 밟았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매주 이론과 실습을 통한 시험, 음악 관련 과제, 전에 배웠던 클래식 보컬과 다른 요소들 - 공부 외에도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직장, 마음과 신경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가족 등등... 다행히 마리아 주위에는 기둥 같은 든든한 남편, 항상 뒷받침해주는 부모, 응원하는 시부모와 친구들이 있었다. 마리는 직장일이 마음에 들었지만 앞으로 뭘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창작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소가 밝고 활동력이 넘치는 마리는 가끔 가수로서 시의 여러 행사에도 참가한다. 한번은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개막식에 마로서 할 일이 많았다. 가족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기반이자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리나에게는 이 시간도 성장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활동하고 있다.

"처음엔 사할린 동포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시아버지의 부탁으로 한인문화센터 무대에 섰는데 나중에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님, 문화센터 음악감독과 가수로 활약하시는 강팔용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 문화센터 가수가 되었죠. 보컬강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올해 정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센터 공연에 참가하려는 30대를 위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무료입니다."라고 마리가 말하였다.

현재 마리나는 한국 노래를 많이 배우고 있다. 한국어는 사할린 어린이 인표도서관에서 한국어에 대한 초보지식을 받았을 뿐이다. 노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리는 번역기를 통해 항상 가사를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뛰어난 청음이 노래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가 좋아하는 가수는 휘트니 휴스턴, 좋아하는 노래는 뜻이 깊고 서정적인 노래다.

1주일에 한 번 보컬수업을 하고, 2-3번은 남편과 함께 피트니스센터에서 하는 운동, 곧 초등생이 되는 딸아들과의 연습시간, 엄마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막내 등등 마리나의 일주일간의 일정은 빽빽하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다. 마리는 "지금 이 순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그는 말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 로만 트루베츠크이, 필리핀에서 개최된 철인경기에서 5위 기록

사할린의 철인 3종 경기 선수 로만 트루베츠크이가 3월 6일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 철인3종 경기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기에 12개 국가에서 25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바다에서 3.8km를 수영하고, 180km의 자전거 경주 후 42.2km코스의 마라톤 경기에 참가해야 했다. 원래 힘든 경기지만 그들에서도 35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선수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참가하는 폴코스 대회이다. 그중 두 번을 몹시 더운 소치에서 치렀는데, 필리핀의 기후는 소치와 비교도 안 된다. 다시 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즐겁다."라며 로만 트루베츠크이가 소회를 전했다.

그는 폴코스 경주를 12시간 37분 만에 완주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ец Роман Трубецкой вошел в пятерку сильнейших в гонке на Филиппинах

Сахалинский триатлет Роман Трубецкой стал пятым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Ironman,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6 марта на Филиппинах.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50 человек из 12 стран.

Спортсмен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оплыть 3,8 км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елосипедной гонке на

180 км, а после пробежать марафон 42,2 км. Помимо основной нагрузки, сложностей добавляла жаркая погода — до 35+ в тени.

— Это моя третья полная дистанция, две из которых я делал в Сочи, где также очень жарко, но климат на Филиппинах не сравнится ни с чем. Даже не знаю, хочу ли я снова повторить. Радует, что я смог это преодолеть. Приятно выводить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свои физические и мент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 поделился эмоциями от гонки Роман Трубецкой.

Сахалинец прошел испытание за 12 часов 37 минут,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와호루셰브의 여학생이 우랄 법학대학 올림피아드에서 13위 차지

와호루셰브 중등학교의 10학년 학생인 다리야 쿠스토와가 러시아 내무부 우랄 법학대학에서 개최한 올림피아드 '법률 수호'에 참가해 주최 측으로부터 본 대학의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고 학교 측이 전했다.

이번 지식 경시대회에는 사할린을 포함해 전국 85개 지역에서 6천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다리야는 사할린 지역 단계 경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전국대회에서는 득점 결과 13위를 차지했다.

장래 법학대학의 대학생이 될 다리야는 그동안 와호루셰브 학교의 역사 및 사회 과목의 코베츠 교사로부터 법률 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한 지도를 받아왔다.

Школьница из Вахрушева показала 13-й результат на олимпиаде Уральск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Ученица 10 класса Вахрушевской средней школы Дарья Кустов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аде "На

страже закона" Уральск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ВД России и получила приглашение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оступить в данный вуз, сообщае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школы.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6800 школьников из 85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рья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региону и показала 13-й результат по сумме набранных баллов по России.

К заданиям олимпиады будущую студентку юрид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одготовил учитель истории 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я П. Кобец из Вахрушевской школы.

'솔닉쉬코'팀이 <펠트장화 신고 하키>에서 슈퍼컵을 차지

올 겨울 가장 멋진 스포츠 기획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막을 내렸다. <펠트장화 신고 하키> 슈퍼컵 대회에 8팀이 경기를 치렀다. 8개 유치원의 유아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대회 참가차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왔다. 이들은 지역 대회의 우승 팀들로서 이제 슈퍼컵이라는 중요한 트로피를 차지하고자 경쟁해야 했다.

10년 전에 탄생한 이 스포츠 기획은 당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7개 유치원들만이 참가했었다. <펠트장화 신고 하키>를 개최하면서 주최 측이 앞서 세운 주목적은 가족을 단합시키는 데 있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대회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펠트장화 신고 하키> 대회가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에 유즈니에 쿠릴리를 포함해 1,200여 명이 참가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학생 올림피아드 우승자와 수상자에게 시상

3월 15일 전 러시아 학생 올림피아드 주 예선의 우승자와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지식 경쟁의 우승자 48명, 수상자 132명에게 메달과 상장을 수여했다.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가 빛나는 결과를 보여준 학생들과 이들의 지도교사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전국 학생 경시대회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시험으로서 소중한 가치와 찬란한 미래가 거기에 있다. 이제 사할린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학문의 성취도를 맞보고 새로운 학문의 탐구에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학업을 성취함에 있어 여러분의 성취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여러분 자신에게만 아니라 친지들과 아낌없이 지식을 전달해주는 선생님에게도 자랑거리가 된다."고 했다.

전 러시아 학생 올림피아드는 대규모 학생들이 참가하는 러시아의 가장 명성 높은 경시대회 중 하나다. 올림피아드는 학교 교과과정의 범주를 넘어선 지식을 추구하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올림피아드 대회는 1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21개 일반 학과목에 따라 진행된 가운데 사할린주의 18개 구역에서 9학년-11학년의 학생들 774명이 참가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과목은 영어, 수학, 생물, 문학이었다.

유즈니 쿠릴 열도와 쿠릴 중심부에서도 2년째 이 구역 올림피아드가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딴 지역임에도 지방 구역 단계 올림피아드에서 훌륭한 결과를 성취한 학생들이 주 예선에 출전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다.

사할린주 올림피아드 예선 결과는 몇몇 과목에서 고학년생 8명이 단번에 우승과 수상을 하게 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 김나지아의 10학년 알리나 마지나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6개 과목 - 생물, 문학, 일반상식, 러시아어, 생태학, 영어 -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했다.

영어 과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은 3명이고, 19명이 상을 받았다. 생물 과목에서는 3명이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고 13명이 상을 수상,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천문학 올림피아드가 생겨 1명만 이 과목의 우승자가 되었다.

이번 올림피아드에서 사할린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과목은 기본 생활안전, 화학, 법률, 체육, 화학, 문학이다.

고학년 주 예선의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은 대학의 방침에 따라 입학 시 가산점을 얻게 된다. 이번에 본선 진출의 합격점을 받은 올림피아드 주 예선의 우승자들은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러시아 전 도시에서 진행되는 전 러시아 학생 올림피아드 결승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고 사할린주교육부가 전했다.

향후 2년 내에 사할린주에 4개의 가스 난방시설 가동

(1면의 계속)

지금까지 '가스프롬'회사는 라즈돌노예 마을에 마을 간 가스 공급처와 가스 연결망 건설을 마무리 짓고 있다.

새로운 발전소는 다음 난방시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홈스크 지역에 가스 난방설비가 국가 전문가들에게 승인되어 공사가 준비 중이다.

현재 LNG난방시설은 6개 구역 - 스미르니흐스크 구역의 오노르 마을, 아니와 구역의 오킨키, 티몹스크 구역의 아도-티모워와 아르기-빠기, 유즈노사할린스트 외곽 구역의 웨스토츠카 마을, 토마리 -에서 기획이 시행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네웰스크, 아니와, 노글리키, 오하, 티몹스코예 등지에서 37개의 가스 난방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죽음으로 거래하는 곳을 알려줘>라는 운동이 사할린주에서 시작

사할린주에서 <죽음으로 거래하는곳을 알려줘>라는 마약퇴치운동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전과 같이 종합 행사는 마약 예방 및 치료,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과 공동으로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진행한다.

이 행사의 주목적은 마약 관련 신속한 주요 정보 수집과 검토를 비롯해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과 치료에 따른 상담 및 효율적 지원을 제공하고, 마약 불법거래 퇴치에 사회 공동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으며, 국민들이 방관하지 않고 마약범죄 퇴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 마약 광고, 선전과 마약 밀매의 장소인 집, 아파트, 마약제품 보관 및 유통, 확산 사실에 대한 정보 접수는 전화 8(4242) 744-903, 102로 신고할 수 있다. 제보 시 익명을 보장한다.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항공편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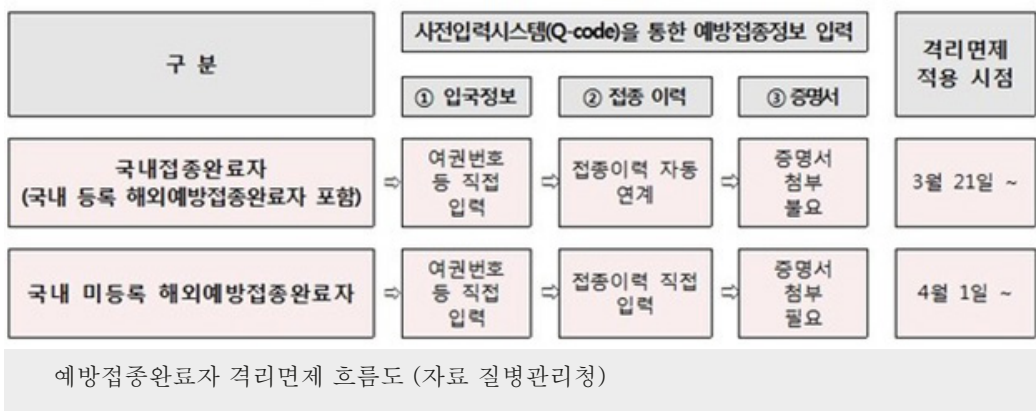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향후 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한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쿼알(QR) 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질병관리청은 "사전입력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검역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구분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는데, 이러한 접종 이력은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흐름도>



자동 연계된다.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 정보 입력은 필요하며, 3월 21일 이전에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소급 적용해 3월 21일에 일시 격리 해제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객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와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입력시스템 본격 운영에 맞춰 해외입국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요청한다"며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지방 공항 등의 개항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을 확대해나가 입국객의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엄마 목소리 / 정완영

보리밭 건너오는 봄바람이 더 환하나
징검다리 건너오는 시냇물이 더 환하나
아니다 엄마 목소리 목소리가 더 환하다.

혼자 핀 살구나무 꽃그늘이 더 환하나
눈 감고도 찾아드는 골목길이 더 환하나
아니다 엄마 목소리 그 목소리 더 환하다.

"요즘엔 이렇게 특별한 기교

가 없는 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고 별다른 양념도 치지 않은. 읽기도 좋고 그냥 아주 편합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철학적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없어 좋습니다. 그냥 그냥 논두렁에 주저앉았다가 엉덩이 툭툭 치며 일어서며 던지는 말들에 가깝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빌딩 숲에 사는 저로서는 일단 보리밭이며 징검다리 건너오는 시냇물이라는 표현이 어딘지 낯설기만 합니다. 집 앞이 바로 한강이지만 걷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요즘엔 한강물 색깔이 빨간 지 파란 지조차 모를 지경이거든요. 등산은 좋아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점이 동네 한바퀴 도는 건 참으로 귀찮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건 또 있어요. 여행을 떠나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면 그 흐르는 물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잠시. 어느새 숯불장작 오리구이를 먹으러 갈지, 민물 매운탕을 먹을 지 주변 맛집 살피기 바쁜 제 자신을 느낍니다. 살구나무를 살펴 본 일은 더더욱 드물고요. 서울 한 복판에 누군가 살구나무를 심을 일도 없겠지만, 도심 한복판 매연을 이유로 아마 그 살구 열매는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런 나무 꽃 그늘에 휩싸여 낮잠 한번 자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량이 따로 없는 생 같겠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참 시멘트같은 정서를 지니고 있었네요.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 하나. 그런 모든 경험이 제 유년 시절과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이 시는 실로 강력한 힘으로 저를 끌어 당깁니다. 바로 어머니, 엄마! 저 역시 훌륭한 어머니 손에 자라 희생으로 큰 삶입니다. 뭇든 서툴고 늦는 스타일. 그러다 결혼만 일찍 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리 일찍 했는지요, 아무튼 참. 대학교 재학 시절 결혼했으니, 말 다한 거죠. 돌아해보면 언제였던가 우리 부부도 소꿉놀이처럼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도 설치고, 울고 보채는 아이와 놀아주며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감기라도 걸려 열이라도 오를라치면 불침번을 서며 서로 아이의 체온을 체크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야 뭐, 널널한 성격이라, 설마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냐 싶어, 애라 모르겠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쿨쿨 자는 스타일이지만요. 아내는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어둑한 새벽녘. 아내가 아이를 끌어안고 해열제를 먹고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잠이 많은 아내가 아예 잠을 포기한 채 밤새 아들 녀석 병간호를 했던 겁니다. 그 때 제가 든 생각. '그래, 모성애는 다르구나'. 엄마 키를 훌쩍 넘긴 아들 녀석은 그 때 그 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늘 허약했던 저를 두고 제 어머니도 제가 늘 골치거리셨겠지요. 자주 체하고, 감기라도 걸리면 남들보다 서너 배는 더 아픈 치레를 했던 기억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라고 전화 드렸더니, 10분이 넘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분. 늘 아들 녀석이 잊히지 않는 분이신지, 잠깐 방문해도 이것저것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서둘러 요리하시는 분. 날이 추우니 그냥 들어가 계시라고 해도 꼭 주차장까지 나와 제가 운전하는 차량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봐야 마음이 편하신 분. 참 맞는 말입니다.

신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 순간 지구촌 곳곳에서 '엄마'를 외칠 영혼들에게 아주 잠시라도 엄마의 목소리를 건넬 수 있었으면 하는 짹짹한 밤입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икакой политики, только бизнес оправдываются фармацевты

Сеул, 13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GL Rapha, один и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российских вакцин Sputnik V и одноразовых коронавирусных вакцин Sputnik light,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продолжит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экспорт вакцин. Этот шаг контрастирует с Huons Global, которая недавно решила прекра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российских вакцин в Южной Корее.

«Мы продолжим проект, как 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GL Rapha. – «Мы пол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 надлежаще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практики (GMP) от России и произвели вакцины для коммерческ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этому у нас нет причин останавливать проект».

В 2020 году GL Rapha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е с Российским фондом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РФПИ), суверенным фондом страны, об экспорте вакцин Sputnik, производимых на заводе ее дочерней компании Hankook Korus Pharm в Чунчхоне, провинция Канвонд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фирм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ла консорциум с несколькими другими местны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лекарств для проекта.

GL Rapha ожидает, что вакцины останутся освобожденными о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учитывая,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США выдало генеральные лицензии на разрешение операций, связанных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Кроме того, компания отвергла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получения оплаты за с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заявив, что может рассмотреть различные альтернативы получения денег через российские банки.

Однако экспорт 5 миллионов доз вакцин, хранящих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 отложен из-за продолжающегося кризиса.

«Мы выпустим пресс-релиз, как только начнем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вакцины», – сказал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 «Мы продолжили переговоры с нашим российским партнеро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Huons Global объявила, что консорциум во главе с компанией решил прекра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российских вакцин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свет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туации.

«Мы приносим извинения тем, кто поощрял наш консорциум»,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компании. – «Пожалуйста, поймите, что это было труд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е после долгих размышлений».

Humedix, дочерняя компания Huons Global, потратила 1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8,1 миллион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линии для флаконов вакцины Sputnik.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завод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других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х продуктов.

В немецкой Баварии также решили прекра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вакцин Спутник V, сославшись на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Министр-президент Баварии Маркус Зедер заявил парламенту территории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что производство вакцины будет заблокировано, даже если оно будет одобрено Европейским агентством по лекарственным средствам (EMA).

РФПИ, который продает вакцины, заявил, что ряд крупных западных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лоббировали власти США ввести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акцину, хотя он отрицает свою причастность к какой-либо политической подоплек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Руслан Пак, режиссер: «Во всем мире стало ясно, что корейцы кино снимать умеют!»

В 2019 году в Алматы завершились съемки полнометражного фильма «Три» режиссера Руслана Пак. «Три» – картина, основанная на реальных событиях, повествующая о Николае Джумагалиеве, известном в СССР маньяке и канибале, и расследовании его жутк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недавно победила в секции «Новые течения» пус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в Южной Корее. И совсем скоро «Три» увидят казахстанские зрители на больших экранах во всех кинотеатрах страны.

О чем фильм «Три» и почему зрителю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его посмотреть, режиссер Руслан Пак рассказал Media Samat и газете «Корё ильбо».

– Руслан, с чего началось увлечение режиссурой? В детстве любил кино?

– Ни мои родители, ни мое окружение не было связано с искусством, но в детстве отец часто рекомендовал книги, о которых увлеченно и очень захватывающе рассказывал. Этикие трейлеры книг, которые я потом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читал. Также часто водил меня в кино.

Мой отец родом из Уштобе Талдыкорга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олодости он поехал на учебу в Ташкент, где я и родился. Провел я все детство в Казахстане, а молодость – в Ташкенте.

Уже на 2-м курсе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я понял, что у меня нет мечты. Очень переживал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и даже просил Бога помочь мне. Это были тяжелые 90-е, и вот именно в этот период удиви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у меня появилась мечта – стать кинорежиссером. Я решил поехать на учебу в другую страну. Выбор стоял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 ВГИКом и Корейск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скусств. Остановился на втором варианте, о чем не жалею.

– Расскажите о фильме «Три». Почему возникла идея снимать фильм об этой истории? Как долго писался сценарий и сколько дней снимали картину?

– Еще в детстве я слышал про маньяка Джумагалиева. 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азад познакомился с человеком,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лял операцию по его задержанию. Узнал от него много деталей, они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меня и я начал писать сценарий.

Тогда,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знал, что дело дойдет до производства фильма. Сама истор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на»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мне, как автору, захотелось что-то сказать через этот фильм. И посмотрев его, зритель поймет, что именно.

Сценарий писался 1,5 года, потом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Съемки длились чуть больше месяца, а всего было 24 съемочных дня.

– Кт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картины, и как подбирали актеров для фильма?

– Это, наверное, особенное отличие и достоинство нашей картины. Участвовали несколько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Кореи, которые руководили своими департаментами, состоявшими из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Сам съемочный период был очень слаженным, обе группы сразу нашли общий язык, нашли даж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оменты в данной копродукции и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Также весь post-production осуществлялся в лучших студиях Кореи. Поэтому команду нашего фильма можно по праву назвать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Актеров подбирали прежде всего по типуажу. Ни с одним из них ранее знаком не был. Кастинг-директор делал предложения, я выбирал. Помимо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популярных актеров, таких как Аскар Ильясов, Самал Еслямова, Игорь Савочкин, я думаю, мы открыли и много новых талантов, игру которых зритель оценит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Ну и, конечно, роль антагониста. Ее тоже сыграл знаменитый актер, имя которого я хочу сохранить пока в секрете.

– Какие награды уже завоевал фильм «Три»?

– Наш фестиваль релиз стартовал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мировой пандемией. Многие фестивали или работали в полуборота, либо не работали вообще.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нам удалось получить несколько наград. Одну – на российском фестивале «Киношок», за реализацию сложной постановочной конструкции. А приз в категории New currents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нам вручили в Пусане. Это главный приз крупнейше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в Азии, и для меня – получить приз именно в Корею – было и остается очень символическим!

– Цель фильма: поучительная и назидательная или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ая?

– Ну, во-первых, для меня сам Джумагалиев неинтересен как человек. Неинтересна его фило-



софия и взгляды на жизнь. Это – большой человек, убийца, а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почему и как он осуществлял свои преступления, это совсем другое кино. Во-вторых, я не мог сделать протагонистом в своем фильме преступника. Ведь каждый зритель должен сопереживать и отождествлять себя с главным героем. Поэтому для меня персонаж сыщика намного ближе и интереснее.

Ки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Конечно, есть назидательные моменты, но каждый зритель открывает их по-своему.

Это не социальный ролик, поэтому говорить о поучительной цели будет не совсем корректно.

– Где и как проходили съемки?

– Фильм снимали в Алматы и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 общал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возглавляли операцию по поимке преступника. Это все-таки 1979 год, и мы старались не отходить от реалий того времени. Нас консультиров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МВД и музея МВД. Мы старались максимально воссоздать эпохальную атмосферу, строили павильоны, фактурили транспорт и т.п. Зритель сможет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атмосферу тех лет.

– Какие были сложные моменты и неожиданно простые?

– Съемочный процесс – это всегда большое приключение с массой непредвиденных ситуаций. Нужно быть к этому готовым и находить пути решения. Иногда коллективно, но чаще всего одному. Я прекрасно знаком с этим процессом, т.к. в кино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В этом году уже 21 год.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непростой процесс – да. Были ли неожиданно простые моменты – наверное, правильнее будет ответить – нам иногда везло. С погодой, например.

– Где и когда будет показана картина «Три»?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ее показали уже в Кореи. Как встретили ее корейские зрители?

– Корейскому зрителю картина была показана лишь в рамках кинофестиваля в Пусане и еще один раз на закрытом показе. В широкий прокат фильм выходит 21 апреля после Казахстана. Зрителям же, которые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наш фильм, картина понравилась, и многие сравнивают её с фильмом «Воспоминания об убийстве» (Пон Джун Хо). Я, конечно, понимаю, что до Пон Джу Хо мне еще далеко, но все равно как минимум мне приятно. Но самая главная премьера и прокат будет в Казахстане. С 31 марта фильм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во всех кинотеатрах страны.

– Бюджет фильма?

– После всех подсчетов, основанных на потенциале в кинопрокатном бизнесе Казахстана, стало ясно, что наш бюджет не должен превышать 500 000 долларов. Несмотря на высокую стоимость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обслуживания в лучших студиях Кореи, мы этот бюджет не превысили.

– Почему казахстанским зрителям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увидеть фильм «Три»?

– Фильм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глав,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имеет свое название и испытание. И последнее испытание я предлагаю пройти самому зрителю.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первая полноценная копродукция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что уже говорит о новом и необычн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ом взгляде и стиле повествования. Я хорошо знаком с отечественным кинематографом и часто слышу, что зритель устал от «тойских» комедий и хочет увидеть другое жанровое кино. Я также знаю историю 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В Корею было то же самое. Раньше корейцы не ходили в кино на 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Говорили: «Денег жалко, оно того не стоит». Но начали появляться режиссеры, которые поверили в зрителя, и стали снимать другое жанровое кино. Все это привело к большому развитию и теперь уже во всем мире стало ясно, что корейцы кино снимать умеют.

Валерия Л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ссии по приёму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назначен Ан Чхоль Су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ссии по приёму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которая представит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назначен лидер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Ан Чхоль Су. До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два политика объявили об объединении своих кандидатур, договорившись о совместном формиров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лучае победы Юн Сок Ёля.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объяснил данное назначение «разделением единых ценностей и философии».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ссии назначен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Квон Ён Сэ, возглавлявший предвыборный штаб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планирования занял бывший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Чечжудо Вон Хи Рён. Комиссия по приёму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состоит из семи отделов, 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и двух спецкомитетов. Она должна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боте 21 март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существила неудачный запуск не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снаряда

16 март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существила неудачный запуск не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снаряда, который взорвался сразу после стар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уточнив, что запуск произведён в 9:30 утра из района аэродрома Сунан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Пхенья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эксперты анализируют имеющуюся информацию. О неудачном запуске сообщила также японская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NHK.

РК отменяет карантин для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прибывающих из-за рубежа

С 21 марта отмен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в РК из-за рубежа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и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ы в стране или за рубежом. Данные о вакцинации должны быть заранее передан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РК.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й документ с печатью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должен содержать имя, год рождения, вид вакцины, дату проведения вакцинации. Правом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те, кто был привит вакцинами, одобренными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прибывшие из-за рубежа смогут покинуть аэропорт обычными видами транспор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распорядился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ракетный полигон Сохэ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ракетный испытательный полигон Сохэ, дав указание расширить и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его. Об этом 11 марта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Данный объект находится в районе Тхончан-ри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Пукто. Он оборудован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запусков ракет дальнего радиуса действия.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Ким Чен Ын оценил состояние полигона и дал указание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его, чтобы в будущем можно было запускать различные ракеты-носители с многоцелевыми спутниками, в том числе военным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м спутником. Ким Чен Ын также распорядился расширить действующие объекты и построить новые, в их числе открытый пункт наблюдения за запуском.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социально изолированных людей

В 2020 году треть населения РК относилась к категории социально изолированных людей.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15 марта доклад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свящённом качеству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0 год.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й изоляции составил 34,1%, на 6,4% вы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Это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 2009 года, когда начался сбор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К социально изолированным относятся те, у кого нет близких и знакомых, готовых поддержать в экстр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в домашних делах или просто морально. Среди мужчин отметка составила 36,6%, среди женщин на 5% меньше. Наиболее уязвимыми в этом плане оказались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0 лет.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в усугублении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сыграли ограничения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По этой же причине резко сократился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к другим людям.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0 год, показатель снизился на 15,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рекордно низкие 50,3%. Среднее количество дней, проведённых одним жителем в путешествии по стране, составило 5,8 дня. Это половина от показателя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вырос уровень ожирения. В 2020 году он составил 38,3%,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4,5%. Причём рост произошёл исключительно за счёт повышения показателя среди мужчин. Всего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оценивается по 71 критерию в 11 сферах.

(RKI)

Почему Корея не сможет обойтись без гастарбайтеров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кмин (Сеул)

2020 год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он стал первым годом, когда количество смертей превысило количество рождений и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начала сокращаться. Эксперты единодушны как в том, что пандемия ускорила наступлени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перелома, так и в том, что произошедшие перемены были неизбежны и носят необратимый характер.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в декабре 2021-го доклад Управления статистики признает: нет ни единого шанса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роста населения в стране, где общий показатель фертильности полтора десятилетия держался на уровне 1,1, а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упал до рекордного по мировым меркам уровня – 0,82.

Сокращение населения, как ожидается, ускорится после 2040-го, так что по «среднему варианту»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рогноза в 2070 году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ит 37,7 млн человек – в полтора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сейчас.

Однако главную угрозу дл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представляет не сокращение населения, а его старение. В 1960 году на одного старика (человека старше 65 лет)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ходилось 20 лиц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Сегодня эта пропорция составляет 1:5, а к 2070 году стариков станет больше, чем работоспособных граждан.

Чужакам здесь не место

Казалось бы,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влекать в страну иммигрантов очевидна. Однако этот вопрос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е обсуждается мало. Причина проста: идея массовой иммигр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ю не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веков Корея была мононациона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 на ее территории вообще не было этнических меньшинств. Даже в колониальные времена, несмотря на присутствие японских поселенцев, корейцы составляли 97–98%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Вплоть до начала 1990-х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оставалась незначительной – не более 0,3%.

Соискатели 3D-работ и импортные жены

Однако «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1960–2000 годов привело к превращению Южной Кореи, некогда самой бедной страны Азии, в мощное индустри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жизни,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безработицы и высокими зарплатами. К началу 1990-х в Корею появилось множес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занимать которые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не рвались. Они описываются в Южной Корею как «работы 3D», то есть «трудные, грязные, опасные» (от английских слов difficult, dirty, dangerous). Именно на этих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корейцев стали быстро заменять гастарбайтеры, привлекаемые неплохими зарплатами. Поработав несколько лет в Корею, житель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итая, Вьетнама или

Узбекистана возвращался домой с деньгами, которых хватало и на покупку жилья, и на обучение детей в вузе, и на открытие небольшого бизнеса.

Итак, история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ю началась около 1990 год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ующих трех десятилетий численность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ю иностранцев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гастарбайтеров) неуклонно росла, достигнув уровня 2,52 млн человек в предковидном 2019 год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ностранцы составили почти 5%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Впрочем, гастарбайтерами дело не ограничилось – в Южной Корею необыч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олучила брачная миграция. Появление в стране множе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невест стало следствием гендерного дисбаланса в глубинке. Уж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молодые женщины уезжают из депрессивных деревень, в то время как их сверстники мужского пола часто остаются на родит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В результате сельским холостякам приходится 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фирм,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хся на «импорте невест по каталогу».

Основным поставщиком этих «крестьянских жен»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был Китай – точнее, населенные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деревни китайского северо-востока. Китайские корейянки в своей массе свободно владеют корейским и хорошо знакомы с традиционным укладом крестьянского дома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Однак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женихи быстро разочаровались в китайских невестах.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гражданки КНР, получи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аспорт, норовят поскорее развестись с опостылевшими мужьями. Отчасти их можно понять: суженых по каталогу зачастую ищут не самые благополучные корейцы –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с финансовыми ил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с пристрастием к алкоголю или азартным играм. Поэтому примерно с 2010 года в роли главного поставщика невест выступает Вьетнам.

В 2019-м браки с иностранцами составили 9,8% всех заключенных в Корею союзов, а в целом в период 2003–2019 годов доля браков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колебалась между 7,3% и 13,4%. При этом в отдаленных сельских местностях на иностранках женятся гораздо чаще – в некоторых уездах вьетнамки, китайянки и прочие прибывшие из-за рубежа барышни составляют более четверти всех невест.

Кто приезжает в Корею, и чем они занимаются

Чтобы понять, чем занимаются и откуда приезжают в Южную Корею иностранцы, стоит обратиться к статистике 2019 года – пандемия сильно изменила ситуацию, но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после ее окончания все вернется в привычное состояние.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Источник: журнал Профиль, март 2022 г.)

Компании РК, работ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могут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за рубежом, но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вращения в РК. Это подтвержда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Федерацией корейских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в период с 17 по 24 февраля среди 105 из 500 компаний, крупнейших по объёму продаж. Выяснилось, что 27,8% из них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вращения в РК. В мае 2020 года их доля составила лишь 3%. То есть,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более чем в 9 раз. Около трети компаний,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не исключ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вращения в РК,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ка-

жет им поддержку, а условия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в стране улучшатс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шесть из десяти компаний заявили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носа бизнеса в РК. В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их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отмечают, что это связано с такими факторами как усугубление проблемы сбоев в цепочках поставок, дестабилизац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системы логистики, затягивание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между США и КНР. Кроме того,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ранее обещал увеличить срок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льгот для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на родину компаний с 2 до 3 лет, расширить для них финансовые и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KBS World

Партнер,
"Полигранд"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усилен контроль за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ью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 огнезащита деревя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кровель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За нарушение мер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и их должностным лицам грозят крупные штрафы.

Вс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4202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со скатными кровлями. В этом году Госжилинспекция совместно с районны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проверила 1500 кровель.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ыдано пять предписаний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гнебиозащитной обработки деревянных элементов конструкций кровель на 98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За неисполнение предписаний управляющим организациями грозят штрафы: от 50 до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или дисквалификации на срок до 3 лет; от 250 д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ах обработано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кровель с деревянны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Наилучшие показател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и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ах – здесь обработано 90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кровель. Среди отстающих Долин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ы.

–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РФ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отвечают перед собственниками квартир за нарушение мер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есу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енадлежащее содержание общего имущества. Отсутствие огнезащитной обработки создает угрозу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их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поэтому вопрос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начальник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осжилинсп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а Гумирова.

Кроме того, на 288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проведены проверки в части ненадлежащего размещ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интернет провайдером. Не у всех управля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меются договоры с интернет-провайдерами на оказание услуг по размещению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местах общего имущества. Некоторые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ы без решения общего собрания собственников.

Напомним,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т возгораний на крышах пострадало несколько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мирных,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Быстрее всего пожар был ликвидирован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Лугово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накануне на крыше прошла огнезащитная обработка, огонь распространялся медленно, и пожар удалось потушить без существенного ущерба для дома и имущества жильцов. Всего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они вернулись в свои квартиры. Вопрос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зят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К работе подключены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и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4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на Сахалине сдадут в течение двух ближайших лет

Задачу по переводу островных котельных с угля и мазута на газ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здоровье людей.

Главе региона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три объекта возводятся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Котельные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топливе общей мощностью около 12 МВт появятся в селах Зональное, Кировское и Ясное.

Объекты готовы уже более чем на 50-60 процентов. В Кировском доставили блочно-модульную котельную, выполнили монтаж дымовой трубы, сетей освещ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устроили подземную станцию пожаротушения. В Зональном сделали фундамент под котельную и дымовые трубы, идет монтаж блочно-модульной котельной и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В Ясном подготовили территорию и обустроили фундамент.

Продолжается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ентральной котельной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Предыдущий подрядчик не справился с обязательствам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оперативно заключен новый договор с другой компанией. На сегодня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фундамента котельной, идет монтаж металлического каркаса здания.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аза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го вида топлива обеспечивает не тольк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оизводства тепловой энергии, но и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ает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ебестоимость услуг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ниже, чем у работающих на угле или мазуте. Кроме того, современная газовая котельная позволяет добиться высокой степени автоматизации,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верш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в Корсакове. Техническая готовность объекта составляет 99%. После запуска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й станции «Корсаков» летом начнутся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ПАО «Газпром» закончи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жпоселковых сетей и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й станции в Раздольном. Новую ТЭЦ запустят к следующему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Параллельно со строительными работами ведетс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объект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и одобрен госэкспертизой проект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в Холмске. Сейчас ведетс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шести котельных на СПГ: в селе Омор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гоньках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Адо-Тымово и Арги-Паг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осточ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Томар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газе уже работает 37 котельны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евельске, Анив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Охинском и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ие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и получат нов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бсудили начало весенних полевых работ.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ые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и расширяют посевные площади под картофелем, овощами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и кормовыми культурами.

– В свете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санкций весенние полевые работы приобретают особ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Стабильная работа аграрного хозяйства – залог повышения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укцией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ивает себя картофелем, овощами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И мы продолжаем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асширяем спектр мер поддержки, чтобы на стола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да была свежая, полезная продукция от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поддержки островных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ставки субсиди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ущественно – в два раза – выросли цены на рынке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Мы своевременно направили заявку в Минсельхоз России на поставку 5350 тонн. Уже поставлено в регион 4400 тонн. Остальной объем планируется получить до конца марта. Поставщик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оэтому здесь опасений не возникает,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Инна Павленко.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сельхозторг на ежедневной основе проводит мониторинг подготовки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к весенним полевым работам. В этом году площадь посадки картофеля составит 1840 гектаров, овощей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 580 гектаров,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 26,5 тысяч гектаров.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реализует два проекта по проведению агротехнических работ на «Красносельской» мелиоративной системе – здесь появи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72 гектара.

У предприятий агрокомплекса в наличии 7300 тонн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т высокорепродукций.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зти 300 тонн семян элиты из Тюме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конца марта основные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и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ы семенами овощных и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С 11 ма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иступили к малой посевной. Предприятия высеивают семена для получения рассады. Первыми начали эту работу совхозы «Тепличный»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СПК «Соколовский». С 15 марта к малой посевной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вс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К полевым работам готова большая часть сельхозтехники. При суще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прошлые годы предприятия обновили парк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машин и тракторов.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из них белорус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есть также машины из Европы. Сейчас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находится вопрос поставок запчастей к ним.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удут найдены доступные аналоги российского и зарубеж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тметим,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охраняет лидирующую позицию сред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по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овощами.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местных агропредприятий и фермеров составляют овощи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прежде всего, томаты и огурц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бласть обеспечивает ими себя на 65 процентов.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области наращивают такж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дукци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 мяса, молока, яиц. Например,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в 2021 году произвела 3,8 тысячи тонн мяса птицы. В 2022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извести 4 тысячи тонн, а в 2023 – 6 тысяч тон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а потребность регио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яйца увеличат до 130 миллионов штук, также закрыв потребност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Более 136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построят и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одолжает практику привлечения денег из российского бюджета на эти цели и уже получила более 4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в этом году транша.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участка дороги Невельск-Томари-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боту так, чтобы на региональные дороги средства шл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Мы строим и реконструируем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и обращаемся з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Тако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с минтрансом России. А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и, ранее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льных дорог, направляем на ремонт 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муниципальных дорог – тех, которыми ежедневно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2022 по 2024 годы в регион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о 98,1 километра дорог,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 38,2 километра. На эти цели направят около 4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дорогам – Невельск-Томари-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Здесь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несколько участков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36 километров.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начнут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соединяющей федеральные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 Мы выбрали ряд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основанных на прогнозе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Например, в рамках направления «Дороги к жилым комплексам» построим более 38 километров и отремонтируем 15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к новым площадкам,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активно застраиваю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запланировано 6 объектов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8,6 километра – самые крупные из них почти 11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и Корсаков-Новиково и больше 16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и до подъема к вулкану Баранского на Итурупе,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Среди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 мосты и подьезды к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гектарам – 10 объектов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31 километр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Охин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планируется капремонт 6 объектов – улицы Гагарина в селе Колхозное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улицы Транспортной в селе Омор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дноименных улиц Школьной в Зональном и Воскресеновке, а также переулка Школьного в Красной Тым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подъездной дороги к военному городку в селе Соловьевк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ерены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снизить долю отходов, подлежащих захоронению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писал дорожную карту с Рос­сийским экологическим оператором. Уже в апреле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од объекты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ектно-сме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и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был утвержден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созданию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бъектов в сфере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должен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 с помощью механизма концессии. Партнерами проекта выступят ППК «Российски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оператор», АО «Газпромбанк» и АО «Ситиматик».

– Совместно с нашим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мы намерены принципиально решить вопрос по всем объектам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Эта работа позволит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на островах, сдела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комфортной для жизни и благоприятной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здоровь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вводом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и поэтапным внедрением на островах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мусора ежегодно будет получено 39 тысяч тонн отходов, пригодных к переработке. Более 8 тысяч тонн мусора планируется термически обезвреживать, 76,5 тысяч тонн органической фракции ТКО – утилизировать. Это позволит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снизить долю ТКО, подлежащих захоронению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ту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была оперативно проведе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первых регионов, с которым мы подписываем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по объектам ТКО, – подчеркну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ПК «Российски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оператор» Денис Буцаев.

– Сахалин –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артнер для нас. Мы совместно реализуем ряд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значимых дл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Сфера обращения с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важна для улучш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 выступает передовым регионом, 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пыт будет масштабирован на субъекты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АО «Газпромбанк» Роман Панов.

На встрече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нял также тему рекультивации свалок на островах. Сейчас готовится техническое задание на проект по рекультивации крупнейшей свалки в области,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оссийски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оператор готов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региону для получени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Чистая страна» и «Генеральная уборка».

Напомним также, чт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развернули масштабную борьбу с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ми свалками. За два года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иквидировали более 3 тысяч стихийных скоплений мусор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안산 한두건설, 사할린 동포 후원

안산 한두건설(주)이 거동이 불편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을 위한 휠체어 4대와 보행보조기 20대를 안산시에 기탁했다.

한두건설은 매년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어르신을 위해 보행보조기(실버카), 휠체어, 김치 등을 후원하고 있다.

기탁받은 휠체어와 보행보조기는 홀로 거동이 불편한 고향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정화 한두건설 대표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이동했으면 하는 마음에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해 정착한 안산 고향 마을 아파트에는 현재 484가구 74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돼 수십 년 동안 잊혔다가 영주귀국사업으로 2000년 초부터 입주했다.

(인천일보)

[신간] 조현용 경희대 교수, '우리말 소망' 펴내

우리말 어휘학자의 '긍정'과 '행복'으로 이끄는
우리말 세상 마지막 편 '우리말 소망'

본지에 칼럼 '우리말로 깨닫다'를 연재하고 있는 조현용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가 신간 '우리말 소망'(2022, 마리북스)을 펴냈다.

이 책은 우리말 어휘학자인 조현용 교수가 안내하는 '긍정'과 '행복'으로 이끄는 우리말 세상의 마지막 권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곳이라는 진리를 전해주는 <우리말 선물>, 살면서 혹여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말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라는 <우리말 지혜>,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말의 기본 규칙과 예외, 탄생 배경을 다룬 <우리말 교실>에 이은 책이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 생활과 문화, 역사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다. 우리말에는 우리 삶의 지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와 같은 세계관 등이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말이 담고 있는 바람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 한다.

<우리말 소망>은 ▲1장 '주문을 외다' ▲2장 '감정이입' ▲3장 '마음 치유' ▲4장 '무언가를 향한 기도' ▲5장 '어떤 가치'로 구성됐다. 저자는 각 장에서 건강, 주문을 외다, 기지개를 켜다, 까짓것, 실수, 망설임, 약연, 역을, 평가, 치유, 만남, 일부러, 어른, 부리다 등의 우리말이 담고 있는 소망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과 연관된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특히 이 책에서는 우리말 이야기와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우리 삶과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조현용 교수는 "소망은 삶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을 가졌다.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은 하루를 버티게 해 주고, 나를 성장하게 해 주며, 새롭게 생기는 소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든다"며 "우리말 어휘가 담고 있는 소망에 저자의 소망을 더하고, 독자의 소망을 더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한다.

조 교수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로 있으며,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과 일반대학원 한국어학 전공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말 어휘학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언어문화, 어휘와 사고 등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말 세상 시리즈를 비롯해 <우리말 깨달음 사전> <우리말로 깨닫다> <우리말, 가슴을 울린다> <우리말, 지친 어깨를 토닥인다> <우리말의 숲에서 하늘을 보다> 등 우리말 시리즈와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한국어교육의 실제> <한국인의 신체언어> <한국어 문화교육 강의> <한국어, 문화를 말하다> <한글의 감점> 등이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조현용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의 신간 '우리말 소망'(2022, 마리북스) 표지

조 빅토르, 박 발렌티나 치료비 후원 모금 시작

인천 함박마을에는 약 6천여 명의 고려인이 모여 살고 있다. 최근 고려의 고려인 두 분의 암투병 소식에 모금을 하고 있어 상황을 알려드린다고 KIN 단체가 전했다.

지난 3월 5일 인천 연수문화원에서 펼쳐진 3·1절 특집 고려인 상호문화 북콘서트 <고려인이주 이야기 '들꽃같은 사람들'>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박 발렌티나

러시아 혁명시기 연해주로 진출한 일본군과의 전투 등에 참여한 항일무장투쟁 독립유공자 박노순의 딸.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 우크라이나 등을 오가며 고분질(계절농업)을 함. 2019년 독립유공자 특별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

였으나 갑상선 암으로 치료중에 있고, 최근 코로나 확진.

'조 빅토르(조태수)님의 부친은 징용으로 사할린에 간 아버지를 찾아 1945년 7월 사할린에 도착. 사할린에서 6남매의 둘째로 태어남. 가족은 평양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주. 이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고려인협회장을 지냄. 이후 2018년 인천 연수동으로. 인천고려인문화원에서 체스를 가르치고 통번역 등의 활동을 하였음. 현재는 식도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

두 분에 관해서는 아래 도서 참조.

최정학, "들꽃같은 사람들", 연수문화원, 2021

모금계좌 : 농협 301-0236-0545-01 디아스포

라 연구소

화물전용 '에어인천' 포스트 코로나 고공비행

설립 10년 맞아 올해 재도약

작년 매출 555억 '역대 최대'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설립 10년을 맞는 올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때 항공기 1대만 운용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했으나, 지난해 항공기를 3대로 늘리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도 추가 항공기를 도입하고 중·장거리 노선 진출을 고민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인천은 지난해 555억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241억원 대비 130% 증가한 것으로 물동량 증가와 운임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항공기 1대→3대·내달 1대 추가
물동량 2만6천t 전년비 120% ↑
2017년 사드 사태 등 '우여곡절'**

에어인천이 지난해 처리한 물동량은 2만6천t으로 전년도 1만2천t대비 120% 성장했다. 에어인천은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추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화물 전문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에어인천은 성장세를 이어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중관계가 악화했다. 이는 항공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은 한국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중단시켰는데, 이 조치가 에어인천에 악영향을 미쳤다. 에어인천은 전세기 방식으로 인천~중국을 오가며 영업을 진행했으나, 사드 사태로 이 길이 막힌 것이다. 경영악화가 이어지면서 2019년 항공기를 잇따라 처분하면서 1대의 항공기만 남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이 항공기의 엔진에 결함이 발견돼 일정 기간 운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항공사는 항공기를 운용하지 않고는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영악화가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는 그해 9월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조치였다.

에어인천은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어인천 박용광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 화물 시장이 호조를 이루지 않았다면 에어인천은 지금까지 유지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임이 상승하고 물동량이 늘어나 성장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항공기는 지난 2021년 3대로 늘어났으며, 내달 중으로 1대를 추가로 도입해 올해는 4대의 항공기를 운용하게 된다. 현재 중국 엔타이, 칭다오, 정저우, 베트남 하노이와 사이공, 일본 도쿄, 러시아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 몽골 울란바토르 등에 취항하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추가로 운항한다는 계획도 있다. 특히 현재



에어인천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에어인천은 향후 중장거리 노선까지 확대하는 등 화물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에어인천 항공기에 화물 상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어인천 제공

는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데 치중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미국을 포함한 중·장거리 노선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장거리 운송이 가능한 A330F 기종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2027년까지 A330F와 B777 기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영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부산 김해공항과 중국을 잇는 신규 노선에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중국을 잇는 노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오는 5월부터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미국 시장 진출 목표

인천공항 자체 화물터미널 추진도

또 인천공항에서 자체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공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DHL, 페덱스 등이 자체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에어인천도 인천공항에서 터미널을 가동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 경우 제조업의 성장,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등이 더욱 활성화해 항공 화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어인천은 올해 추가 항공기를 도입해 물동량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3만2천t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광 대표는 "항공 화물 운송 시장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처음 화물 항공사로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고민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2022.03.14)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3월 12일(토)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솔닉쉬코'유치원 팀과 돌린스크의 유치원 '스카즈카'팀이 결승에서 맞붙었다. 전반전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팀의 유아 선수들이 1점을 획득하고, 후반전에서도 이 팀의 엄마들이 상대의 골문을 뚫고 2골을 넣었다. 마지막 5분이 남은 상황에서 돌린스크의 아빠들이 2골을 넣어 바짝 추격했다.

결과적으로 <펠트장화 신고 하키> 슈퍼컵은 '솔닉쉬코'유치원 팀이 차지했고, 2위에 돌린스크의 유치원 '스카즈카'팀이 차지, 3위는 코르사코브의 유치원 '로마쉬카'팀이 차지했다.

«Солнышко» завоевало суперкубок «Хоккея в валенках»

Самый добрый спортивный проект этой зимы заверш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семь команд разыграли суперкубок «Хоккея в валенках».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приехали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 их родители из восьм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Они выиграл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и теперь им предстояло побороться за главный трофей - суперкубок.

Этот проект родился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И тогда в не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сего семь детских сад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Цель, которую перед собой став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здавая «Хоккей в валенках», объединить семьи.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дети, папы, мамы, бабушки, дедуш-

ки проводили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вместе.

В этом году район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Хоккея в валенках» прошли в 14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2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12 марта в финале встретились команды детских садов «Солнышк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долинской «Сказки». В первом периоде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забросили один мяч. Во втором – их мамы ещё дважды огорчили вратаря соперников. А вот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пятиминутке долинские папы чуть не совершили камбэк, забили два гола.

В итоге «Солнышко» завоевало суперкубок «Хоккея в валенках».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Сказки».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у корсаковской «Ромашки».

<2022-뜨거운 마음> 명예의 인명록에 포로나이스크 두 소년의 이름 올라

이 학생들은 사회적 문화재단의 주도로 전 러시아 국가 공동체가 참여하는 투표에서 우승하여 포상으로 <뜨거운 마음> 훈장을 받았다. 명예의 인명록에는 2021년 7월 28일, 포로나이스크의 소년 톨라 브도웬코(2008년생)와 미샤 코레넬(2009년생)가 바다에 빠진 소년을 구조했다고 기록돼 있다.

사건은 포로나이스크 중심 지역 켄트니에 해안가에서 발생했다. 9세-10세 정도의 두 명의 남아가 해안가에서 떠내려 오더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때 해안가에서 놀고 있던 미샤와 톨라가 이를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진 두 아이 중 한 명을 건져내고 이어 다른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물

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파도가 밀려와 두 번째 아이는 구하지 못했다. 어린 구조자들은 최선을 다해 구조했다.

명예의 인명록에는 러시아 및 다른 국가의 23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인명록은 매해 작성되는데 포상위원회는 이번에 수상자 141명과 12개 사회단체를 선정했다.

В почетную книгу «Горячее сердце-2022» занесены имена двух поронайских мальчиков

Школьники получили нагрудные знаки «Горячее сердце», победив в голосован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нициативы Фонда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книге, 28 июля 2021 года поронайцы Толя Вдовенко(2008 г.р.) и Миша Коренев(2009 г.р.) спасли тонущего в море подростка.

Случилось это на берегу залива Терпения в черте райцентра. Двоих ребят 9-10 лет отнесло от берега, и они стали тонуть. На берегу в этот момент отдыхали Толя и Миша. Они бросились в воду и вытащили одного из тонувших.

После снова бросились в воду, чтобы помочь второму. Но набежала большая волна и ребенка спасти не удалось. Юные спасатели сделали всё, что было в их силах.

В почетную книгу включены имена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в возрасте до 23 лет. Список формируется ежегодно, в этот раз наградная комиссия выбрала 141 лауреата и 12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